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7. 3. 8.
- 제공자 :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
- 과 장 : 김 남 수
- 사무관 : 김 민 옥
- 전 화 : 02-500-1795

이 자료는 2007년 3월 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『종자산업발전 간담회』 개최
=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'종자산업발전대책' 추진키로 =

- 농림부는 지난 3. 8일, 장관주재로 '종자산업발전 간담회'를 개최하였다.
- 농림부에 따르면, 이번 '종자산업발전 간담회'는 농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여온 『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』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, 종자관련 학계, 업계대표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- 농림부는 지난해 9월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『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』을 발표하였으며,
- 주요 내용은 '민간육종지원강화', '분자유종 투자강화', 수입 개방화 대응 고품질 품종 육성', '종자보급·유통지원' 등이다.
- 이번 간담회에서 종자관련 학계 및 업계대표들은 전반적으로 『종자산업 발전 중장기 대책』 추진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당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하였다. 그 주요 내용으로,

- 종자업계에서는 ‘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’의 확대,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성 확대 및 ‘원예육종기술지원센터’ 기능강화를 건의하였고,
 - 민간육종가단체에서는 개인육종가에 대한 육종기술교육 등 개인육종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,
 - 육묘업단체에서는 육묘업체의 종자업 등록이 용이하도록 종자산업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,
 - 종자관련 학계에서는 분자육종 등 신품종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.
- 농림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및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자산업법령 개정, 분자육종 투자강화 및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등 『종자산업발전중장기 대책』을 지속적으로 보완·개선하여 종자산업을 우리 농업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.